제9강 취미판단의 제2계기: 분량범주에 따른 고찰(3)

(1교시)

◆ 서양철학에서의 진리

※ 서양철학에서 '진리'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간략하게 알아본다.

▲ 진리와 가치

- 철학 ■■ 존재론
  ■■ 인식론
  ■■ 가치론 --- 예) 윤리학, 역사철학, 예술철학, 사회철학,.....

- 진리와 가치의 구분
 : 서양철학에서는 진리와 가치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.
  ※ 흄 -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를 구분
   칸트 - 종합명제와 분석명제를 구분

서양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리에 가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을 꺼린다.

가치: 인간,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되는 개념
진리: 인간이 개입과 전혀 관계없이 참된 어떤 것이 있다.

※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가들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진리와 가치가 만난다.

▶ 참고자료 I
흄 [Hume, David, 1711.4.26~1776.8.25]

영국의 철학자.
주요저서: 『인성론』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▲ 모순이 없는 것

- 진리의 소극적 기준: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다.
  그러나 모순을 포한하지 않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.
  ※ '모순 자체가 진리'라고 보는 입장: 변증법이 바탕이 되는 사상

▲ 진리와 자유

- '진리란 궁극적으로 자유'라고 보는 관점

  ※ 헤겔은 자유가 '필연성의 통찰'이라고 했다.
  ■■ 전체를 인식하는 것

  ※ 변증법
  : 부정의 계기 + 긍정의 계기 + 고양의 계기 → 구체적 보편
  예) 산은 산이다. (a)
  산은 산이 아니다. (b)
  산은 산이다. (c)
  (a): 추상적인 앎. 전체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배제한 채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.
  (b): 부정을 통한 구체화. (a)의 단순한 동일성(A=A)의 수준을 넘어선다.
  (c):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결합됨.
  ⇒현실 속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들이 수반된다.
  (체계적인 역사철학의 등장)

▶ 참고자료Ⅱ
헤겔 [Georg Wilhelm Friedrich Hegel, 1770~1831]

독일의 철학자.
주요저서: 『정신현상학(精神現象學)』, 『논리학』, 『법철학 강요』
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념론의 대성자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칸트의 관념론

※ 인식론에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을 통해 칸트의 관념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.

▲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

(1) 보편적 진리
- 인식론적 관점에 적합하다.
- '항상 그러하다'는 의미가 강조된다.

(2) 절대적 진리
- 존재론적 의미가 부각된다.
- '근거가 그 자신에게 있다'는 의미이다.

▲ 인식론에서의 진리

- 인식론에서 말하는 진리는 '인식과 그 대상의 일치'이다.

- 그렇지만,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과 대상 그 자체가 정말 일치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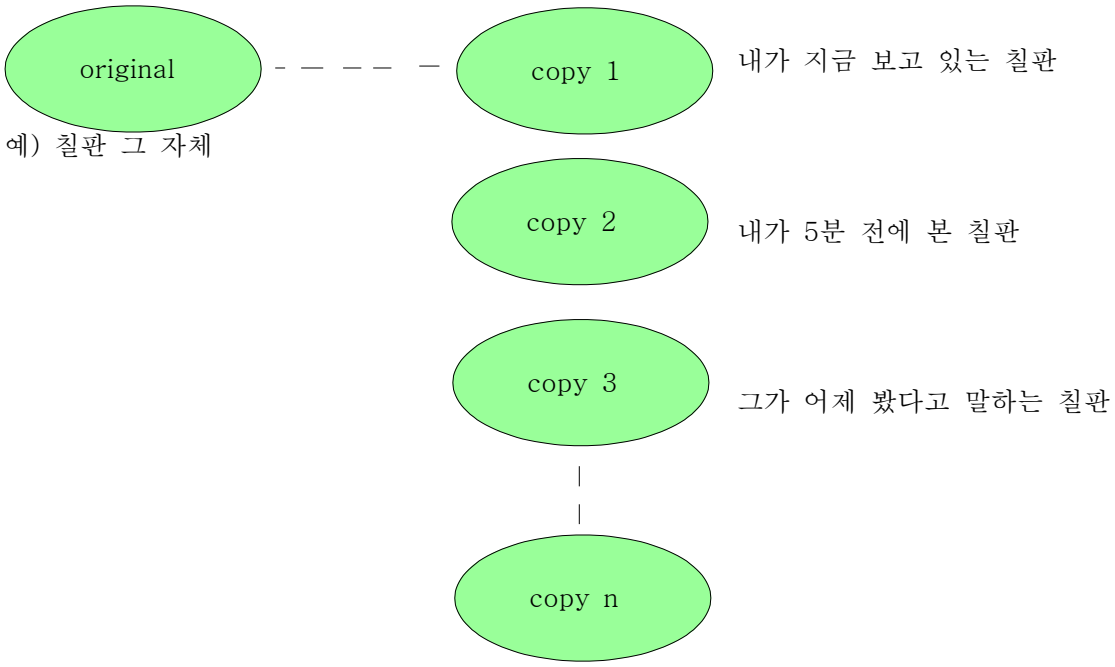
※ 진리란 '정당화된 참된 믿음'이다. (플라톤 대화편 <테아에테토스> 中)
: 진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게티어 등 영미철학의 전통으로 계승된다.

▶ 참고자료Ⅲ
게티어 (Edmund L. Gettier, 1927~)

미국의 철학자
1963년에 발표된「정당화된 참된 믿음은 지식인가? (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?)」라는 짧은 논변(게티어의 문제)으로 유명하다. 현대인식론에서 정당화 개념을 상세히 분석해보는 계기를 이끌었다.

▲ 모사설 (copy theory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

: copy들 간의 일치 여부는 확인 가능하지만 original과의 일치여부는 확인 불가능.

⇒ <u>실재론</u>이 불가능하다

■■→ '인식 주관과 완전히 독립하여 있는 것'이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보는 입장

⇒ 관념론

▲ 칸트의 관념론

-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한다.

X ----------→ 현상

물자체 우리가 아는 것

(Ding an sich)

: 진리를 '인식과 그 대상의 일치'라고 할 때, 대상이란 물자체가 아닌 현상으로서의 대상을 말한다.

- 인식의 가능조건이 곧 대상의 가능조건이다.

※ 헤겔의 『대논리학』

■■ 존재론 - '존재-무-생성'의 변증법

■■ 본질론

■■ 개념론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존재 그 자체(Sein an sich) = 無(Nichts)
: 존재 그 자체가 다른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있다면
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.
⇒ 작용 없는 곳이 존재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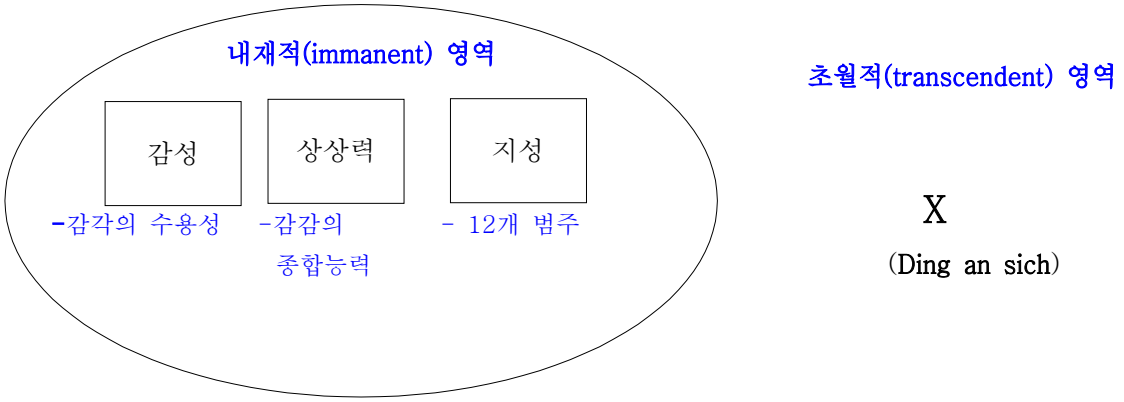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3교시)

◆ 취미판단과 진리

※ 반성적 판단력에서 나오는 취미판단을 통해 어떻게 진리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본다.

▲ 감성, 상상력, 지성



- **감성**: 감각을 수용하는 능력

- 감성의 선험적 형식: 시간(미래로 직진하는 시간), 공간(유클리드 기하학의 방식)
  시·공간 능력: 내가 세상을 감각하여 보는 방식

- **상상력**: 개념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받아들인다.
  지성이 주는 개념에 따라 감각을 정돈하여 수용한다.

※ transcendental philosophy
: 칸트철학. 초월철학, 반성철학
'내재적'인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.

▲ 반성적 판단력과 진리

(1) '규정적 판단력'의 관점에서 본 진리
: 지성이 개입해서 답을 얻은 것.
(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바를 지성이 주는 어떤 개념에 부합시킨다.)

(2) 반성적 판단력에 기초한 취미판단
: 상상력이 지성의 개입 없이 감각을 종합한다.)
⇒ 무규정적. 상상력의 자유

- (1)만으로는 X(물자체)가 은폐될 수 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)를 통해서 오히려 X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.
: 예술 적 가상이 진리에 보다 가까울 가능성

- 단칭판단의 보편성
: 보편적인 개념에 얽매임 없이 대상 자체와 동조하듯 만날 때 보다 진리에 가까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.
-------→ 하이데거, 훗설, 가다머, 아도르노, 들뢰즈 등의 사상으로 이어진다.

▶ 참고자료Ⅳ
들뢰즈 [Gilles Deleuze, 1925~1995]

프랑스의 철학자.
주요저서:『차이와 반복』(1968), 『앙티 오이디푸스』(1972, 공저)
구조주의 등 1960년대의 서구 근대이성의 재검토라는 사조 속에서 철학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배경으로 서구의 2대 지적 전통인 경험론 ·관념론이라는 사고의 기초형태를 비판적으로 해명하는데 힘썼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